

## 근대를 향한 시선

— 이광수 『無情』에 나타난 ‘연애’의 성립과정을 중심으로 —

정혜영\*

1. 서론
2. 「婚姻에 對한 管見」과 연애론의 성립 과정
3. 사제지간의 애정 관계 형성과 그 의미
4. 처녀성 상실의 이중적 의미
5. 결론

### 초록

1917년 발표된 이광수의 『無情』은 당대 신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는데, 여기에는 이 작품이 소설로서는 처음으로 ‘연애’를 주된 테마로 다루었다는 점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 유입된 ‘연애’는 당시 조선 사회 전반에서 일기 시작했던 구습에의 비판,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맞물려 <유행하는 독감모양으로 연애전염병>을 조선사회 쏠매에 퍼뜨리고 있었다. 정신성 중시와 일부일처제 준수를 지향한 새로운 애정형태 ‘연애’가 이처럼 당대 사회에서 맹위를 떨칠 수 있었던 것은 조혼, 강압결혼 등 한계에 달한 전근대적 가족제도에 대한 불신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변혁기 조선의 모습을 『無情』은 ‘연애’라는 렌즈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다.

『無情』에서 ‘연애’의 사회적 의미는 두 가지 형태의 사랑을 통해 고찰되고 있다. 세 명의 주인공들, 이형식을 중심으로 김선형, 박영채가 엮어내는 삼각의 애정이 그것이다. 여기서 이형식과 김선형이 사제지간의 관계로서 애정을 형성해 가는, 당대로서는 드물었던 사랑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면, 이형식과 박영채는 舊緣, 報恩과 같

\* 경북대 강사

은 구시대적 애정의 요소에 상당부분 기초하여 사랑을 형성해가고 있다. 그리고 이 세 인물간에 형성되는 이질적 사랑의 형태는 제각기 일본유학생 출신의 교사와 여학생, 기생이라는 인물들의 외형과 긴밀하게 연결, '연애'의 근대적 의미를 확보해 가게 된다.

## 1. 서론

1917년 발표된 이광수의 『無情』에는 주인공 이형식이 사이비 선각자 배명식에게 그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페스탈로찌와 엘렌케이<sup>1)</sup>라는 두 서양사상가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배명식이라는 인물의 무지와 허위의식을 조소하는 장면이 나온다. 당대 사회 내에서 페스탈로찌와 엘렌케이가 점했던 위치, 근대적 교육과 근대 연애론의 상징적 인물로서의 그들의 위치를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이형식의 태도에는 당대 최고의 지식인으로서의 지적 자만심뿐 아니라 근대를 인식하는 그의 시각 역시 함께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독단적으로 교권을 휘두를 뿐만 아니라 조강지처를 버리고는 여학생과 혼인, 기생과의 오입 등 일부다처의 관계를 자행하고 있는 작중의 배명식이라는 인물에게 엘렌케이와 페스탈로찌를 묻는 순간, 이형식은 이미 그와 자신 사이에 전근대적 세계와 근대적 세계간의 무궁대의 거리감을 상정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無情』에서 이형식은 실용적이고 자율적인 교육과 자유 연애, 이 두 가지 렌즈를 통하여 근대를 인식하고 있다. 이 두 요소 중 교육과

---

1) 엘렌 케이는 근대 스웨덴이 낳은 저명한 부인운동가이고 교육이론가이다. 일본에서는 1911년 『太陽』 잡지에 엘렌케이가 처음 소개된 이래 일본여성운동의 선구자적 위치를 지닌 『靑鞆』에서는 1913년부터 그녀의 명저 『戀愛와 結婚』을 번역해서 실기 시작한다. 이후 한국에서는 1921년 『開闢』을 통해 첫 소개되고 있다. 이광수의 『無情』의 경우 엘렌케이이라는 이름이 두 번이나 등장, 이광수 역시 엘렌케이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無情』의 발표연도가 1917년인 점을 감안하면 일본의 번역으로부터 엘렌케이에 대한 개략적 정보를 얻었을 가능성이 많다.

근대의 관계는 작품에서 이형식 혹은 나머지 인물들의 언급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설명, 명시되고 있지만 자유 연애의 경우는 이형식을 비롯해 박영채, 김선형, 신우선, 그리고 멀리는 배명학에 이르기까지 모든 등장 인물들이 빈번하게 노출시키는 의식의 혼란 등 삶의 전 과정을 통해서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그 맥락을 파악하기에 상당히 많은 어려움이 있다. 여기에는 ‘연애’라는 용어가 1910년대를 전후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용어라는 점,<sup>2)</sup> 『無情』이 창작된 1910년대에는 ‘연애’에 내재된 근대적 의식이 뿌리를 내릴만한 기본적 토양이 사회적으로 아직껏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 등이 주된 요소로서 지적될 수 있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無情』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연애’에 내재된 근대적 의식이 당대 사회에서 어떤 형식으로 실현되어 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는 다수의 평론들에서 지속적으로 표명되어온 근대에 대한 이광수의 지향이 그의 의식 속에서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확보되고 있는가에 대한 고찰의 기회가 되기도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이광수의 ‘연애’에 대한 논의를 살펴해보도록 하겠다.

## 2. 「婚姻에 對한 管見」과 연애론의 성립 과정

1912년 발표된 이상협 의 『눈물』에는 남녀의 애정 관계를 당시로는 생소했던 ‘연애’라는 용어로써 표현, 다시 그 ‘연애’를 순결·신성한 연애, 추잡·비루한 연애로 이원화시킨 후<sup>3)</sup> 전자를 상위에 두는 언급이 잠시 등장한다. 이와 같은 태도는 이광수의 『無情』을 거쳐 김동인의 『마음이 얼은 처녀』에 이르면 훨씬 명료하게 정리된다. 신성과 순결, 그리고 추잡

2) 1919년 『學之光』에 발표된 「舊관을 버셔요!(-)」(桂麟常, 『學之光』, 1919. 8)에 서는 <연애>라는 용어가 동경유학생들에 의해 유입된 신외래어라는 점이 언급되고 있다.

3) 李相協, 『눈물』, 『韓國新小説全集』(乙酉文化社, 1965).

과 비루라는 다소간 의미가 모호했던 용어들이 정신성과 육체성이라는 보다 명징한 용어로 대체되는 것이다. 이처럼 남녀의 애정 관계를 정신성과 육체성으로 이원화시킨 후 전자의 우위성을 역설하는 태도는 양자의 구별 없이 일원화시켜 파악하던 1910년대 조선의 분위기에서는 낯설고 이질적인 것이었다. 여기에는 ‘연애’라는 용어가 우리 고유의 토착어가 아닌, 당대 신여성들이 애용했던 히사시가미라는 헤어스타일처럼, 이 시기를 전후하여 일본으로부터 수입된 것이라는 점이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제시된다.

일본에서 ‘연애’라는 용어는 1870년 영어 ‘러브’의 번역을 위해 생성된 신조어이다. 남녀간의 애정을 지칭하는 ‘戀’ ‘情’, 혹은 ‘色’ 등의 용어가 일본에 있었음에도 ‘러브’의 번역을 위해 ‘연애’라는 신조어가 생성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에는 ‘러브’라는 용어에 내재된 의식의 새로움이 결정적 원인으로서는 작용하고 있다. 남녀관계의 정신화·靈化 강조, 평등한 인간관계 지향 등의 근대적 의식이 바로 그것이다. 이처럼 새로운 세계의 의식을 담은 이 ‘러브’라는 용어를 기존 세계의 의식을 담은 戀, 情, 色 등의 용어로 번역해 낼 수 없었음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하겠다. 이 분위기 속에서 생성된 것이 ‘연애’라는 용어이다. <진정한 영혼의 결합에서 발한 愛>,<sup>4)</sup> <깊이 영혼(soul)에서부터 사랑한다><sup>5)</sup>라는 언급에서도 나타나듯 嚴本善治 등 당대의 주도적 연애론자들이 ‘영혼의 사랑’에 강력하게 집착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연애’라는 용어를 둘러싼 이와 같은 의미는 용어 ‘연애’와 더불어 1910년을 전후하여 조선으로 이입된다.

한국문학에서 ‘연애’라는 용어는 대략 1912년 이상협이 『눈물』에서 그 첫 소설적 용례를 보인 이래 이광수의 『無情』이 발표된 1917년을 전후하여 『學之光』 『青春』 등의 잡지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여기에는 1910년을 넘어서면서 조선 곳곳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어

4) 嚴本善治, 「婦人の地位」, 『女學雜誌』(1885. 8), p.3.

5) 嚴本善治, 「俗問の 姫百合」, 『女學雜誌』(1890. 10), p.31.

은 조혼·축첩폐지, 여자교육과 지위향상에의 촉구와 같은 일련의 <사상대개혁><sup>6)</sup> 작업이 중요한 토대로서 작용하고 있다. 남녀 애정관계에 있어서 ‘영혼의 결합’, 즉 정신적 가치에 중점을 둔 ‘연애’가 여성의 지위향상, 일부일처제 준수를 통해 평등한 인간관계를 사회적으로 도모하고 있었다면, 1910년을 전후하여 조선사회에서 진행된 이상의 대개혁 역시 동일한 것을 지향하고 있었던 것이다.<sup>7)</sup> 이와 같은 연애론의 중심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이광수이다. 이광수의 「婚姻에 對한 管見」은 ‘연애’의 제 의미 및 ‘연애’의 사회개혁적 측면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된다.

이광수는 혼인풍습의 개량을 논한 「婚姻에 對한 管見」에서 ‘연애’야말로 <個人的 幸福 중에 最大한 幸福>이라고 전제한 뒤 ‘연애’를 건강, 정신력, 경제력, 충분한 발육으로 열거되는 혼인의 조건 중 가장 기본적 조건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즉 조혼, 강압결혼과 같은 구시대 혼인의 풍습을 타파할 수 있는 해결책으로서 ‘연애’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다. ‘연애’에 대한 다음의 언급은 ‘연애’가 이처럼 사회적 구습타파의 중심위치에 놓여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한 좋은 설명이 된다.

戀愛의 근거는 男女 相互의 個性의 理解와 尊敬과 따라서 相互間에 일어나는 熱烈한 引力的 愛情에 있다하오. 母論 容貌의 美, 音聲의 美, 舉動의 美 등 表面的 美도 愛情의 重要한 條件이겠지오마는 理知가 發達한 現代人으로는 이

6) 1915년 『學之光』에 발표된 「思想改革論」에서는 신생활을 구축을 위해서는 조선사회에 일대의 신사상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 조선사회에 일대의 孔敎의 타파, 자유연애의 고취 등과 같은 사상대개혁작업을 제기하고 있다. 宋鎭禹, 「思想改革論」, 『學之光』(1915).

7) 1910년대 자유연애라는 용어가 지닌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는 박영희의 이광수 『無情』에 대한 한 고찰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박영희는 『無情』이 발표된 시대는 “數百年 동안의 儒敎道德에 놀려서 (……) 女子는 男子의 奴隸와 같고 青年은 父老들의 奴隸와 같이 自主的 自由性이 없었던 시대로, “그때의 자유연애라는 것은 자유연애 그것이 벌써 옛 도덕에 대한 항쟁이며 옛 사회에 대한 투쟁이었다”고 언급하고 있다. 朴英熙, 「現代韓國文學史(三)」, 『思想界』(1958. 9), p.46.

러한 表面的 美만으로는 滿足하지 못하고 더 깊은 個性의美—即 그의 精神의 美에 恍惚하고사 비로소 滿足하는 것이시오. 外貌의 美만 取하는것은 아마 動物的 又は 原始的 愛게시오. 進化한 戀愛의 特徵은 熱烈한 感情의 引力과 明皙하고 冷靜한 理知的 判斷이 平行하는데 잇다하오 가장 잘 教育 바든—即 가장 健全하게 發育한 靑年男女의 戀愛은 이러한 것인가 하오.”<sup>8)</sup>

여기서 ‘연애’는 원시적이고 동물적인 사랑과는 구별되는 <냉정한 이지의 판단이 평행>해 있는 <진화>된 애정의 형태로서 정의되고 있다. 즉 ‘연애’라는 것은 <고상한 정신생활을 가진 자>의 <영적(靈的) 요구>로 이루어진 <문명적> 애정이라는 것이다.<sup>9)</sup> 이처럼 이광수가 ‘연애’에 내재된 정신적 가치 우선의 태도를 ‘진화’ 혹은 ‘문명’이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까지 강조하는 것은 그것이 곧 <남녀 상호의 개성의 이해와 존경>에 기반한 평등·자유로운 남녀 관계형성의 기본이 되기 때문이다. 『婚姻에 對한 管見』에서 이 논지에 이어 남녀의 영적 결합의 기본조건으로서 여자의 교육문제가 논의되는 것은 ‘연애’의 정신성과 평등하고 자율적인 남녀관계의 성립, 이 양자간의 이와 같은 밀접한 연관성을 설명해 주는 것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부부관계와 매음의 차이에 대한 이광수의 다음의 언급은 그 점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다.

사람과 사람과의 結合이라 하면 全身全靈의 結合을 意味하되 男性과 女性의 結合이라 하면 다만 男女 生殖器의 結合에 不過할 것이외다. 夫婦와 賣淫과의 차이가 어데 잇나요? 夫婦라 함은 肉의 結合 외에 靈의 結合을 意味호대 賣淫이나 野合은 다만 肉의 結合을 意味할뿐이외다. 이 意味로 보아 나는 靈의

8) 李光洙, 『婚姻에 對한 管見』, 『學之光』(1917. 4), pp.376~377.

9) 이와 같은 이광수의 견해는 인간 문명의 단계를 야만(野蠻), 반개(反開), 개화(開化)의 삼단계로 분리하고 남녀간의 애정 역시 色, 癡, 愛의 삼단계로 나누어 대응시킨 후 역사 발전과 남녀애정의 완성을 각각 <개화>의 시대와 “진정의 영혼의 결합에서 발한 愛”에서 찾고 있던 일본 연애론의 선두주자 嚴本善治의 진화론적 태도와 상당히 닮아 있다고 하겠다. 嚴本善治, 『婦人의 地位』, 『女學雜誌』(1885. 8), p.3.

結合이 없는 夫婦는 이미 夫婦가 아니오 野合이라 합니다. 우리나라의 夫婦關係는 實로 영원히 契約한 野合關係라 합니다.

그럼으로 婚姻을 神聖하게 하라하면-婚姻으로 하여금充分이 그 意義와 使命을 發揮케 하라하면 男子와 平行할만한 女子의 教育이 必要하다 합니다.<sup>10)</sup>

영적(靈的) 결합이 부재한 남녀관계를 매음 혹은 야합이라 전제한 후 영적(靈的) 결합의 부재에서 출발한 조선의 모든 부부관계를 야합의 관계로 규정해버리는 이 논지는 ‘연애’에 내재된 사회개혁적 측면을 충분히 드러내고 있다. <女性을 人으로 잡았는 故로 戀愛가 생><sup>11)</sup>였다는 『學之光』 한 논설의 언급처럼, ‘연애’의 실현에는 남성과 사회적 정신적으로 대등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을 만큼의 여성의 교육이 필수적 조건으로서 전제되어 있었다. 즉 ‘연애’에는 <여성을 이해한 故로 남녀평등으로 되>었던 <총명한 외국사람><sup>12)</sup>의 의식, 환언하자면 근대적 세계의 정신이 기저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연애’로 결속된 부부관계가 남성중심적 일부다처제를 거부하고 일부일처제로 나감은 당연한 결과였다고 하겠다. 이광수가 「婚姻에 對한 管見」의 마지막 논지로서 여성의 정조와 더불어 남성의 정조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것은 바로 그 때문이라고 하겠다.

이광수는 이 논지에서 <貞操는 夫婦雙方이 生存하는 동안에 論할 바>라면서 <불경이부(不更二夫)>의 의미를 지녔던 조선의 전통적 정조개념을 비판한 후 여성의 재가 허용과 더불어 남성의 정조 역시 함께 요구하고 있다. 남자가 여자에게 정조를 구하는 것처럼 여자 역시 남자에게 정조를 구함은 당연하며 그 실질적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일부일처제라는 것이다. 이처럼 식민지라는 한정된 상황 속에 간혀 있던 이광수에게 있어서 자율적 인간으로서의 개인적 자각에 기반한 ‘연애’야말로 조

10) 李光洙, 앞의 글, pp.378~379.

11) 桂麟常, 「舊習을 버셔요(-)」, 『學之光』(1919. 8), p.52

12) 위의 책, p.52.

혼, 강압결혼, 남존여비 등으로 점철된 전근대적 세계의 문을 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였다고 할 수 있다.

### 3. 사제지간의 애정 관계 형성과 그 의미

1917년 발표된 이광수의 『無情』은 당대 신청년들의 뜨거운 관심과 호응을 받는데 여기에는 이 작품이 소설로서는 처음으로 ‘연애’를 주된 테마로 다루었다는 점이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 유입된 ‘연애’는 당시 조선 사회 전반에서 일기 시작했던 구습에 의 비판, 특히 여성의 지위향상에 대한 지속적 관심과 맞물려 <유행하는 독감모양으로 연애전염병><sup>13)</sup>을 조선사회 全域에 퍼뜨리고 있었다. 김동인의 다음의 글에서는 조선사회의 그와 같은 한 풍속을 엿볼 수 있다.

당시의 청년들은 1년에 한두 번씩 발행하는 『青春』을 얼마나 기다렸으며 거기 실은 春園의 소설을 얼마나 애독하였을까? 조선의 四面에서 이혼 문제가 일어났다. 自由戀愛에 희생된 少女로 신문 삼면을 흥성스럽게 하였다. 동시에 해방된(?) 여성들의 拒婚同盟이 각처에 있었다. 不敬不老와 宗教盲信 排斥이 없는 곳이 없었다.<sup>14)</sup>

‘연애’가 이처럼 이혼, 拒婚 등 급진적인 행위를 수반하면서 1910년대 조선사회에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에는 전통적 가족제도에 대해 한계에 달한 불신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화학당을 비롯해 여학교가 연이어 설립되고, 기독교가 전국적으로 전파되어 예배당에서 남자가 동석, 동등한 자격으로 예배를 보는 것이 드물지 않은 풍경<sup>15)</sup>으로 등

13) 바-보, 「戀愛는 神聖한가」, 『青年』(1921. 5), p.23.

14) 金東仁, 「韓國近代小說考」, 『金東仁全集』12(大衆書館, 1983), p.463.

15)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수도 기독교가 조선에 끼친 영향을 논하는 논설에서



장하는 등 일련의 사회적 변화가 사회 전반에 걸쳐 발생하고, 이로 인해 가족제도뿐만 아니라 남녀애정관계에 있어서도 새로운 형태가 요구되게 된다. 『無情』은 사회 전반에 불어닥친 이 변화의 모습을 ‘연애’라는 하나의 렌즈를 통하여 파악해 간다.

이 작품은 동경유학에서 돌아와 교편을 잡고 있던 이형식이 조선의 세력가이면서 선각자였던 김장로의 딸 선형의 영어 가정교사로 초빙되어 김장로집을 찾아가면서 시작된다. 이형식은 이 곳에서 정신여학교를 졸업, 미국 유학을 앞두고 있는 김장로의 외동딸 선형과 첫 대면을 하게 된다. 이 만남은 이형식을 사위로서 심중에 둔 김장로의 의도에 의해 계획적으로 주선된 것이라는 점에서 전통적인 강압결혼의 예후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으나 두 남녀가 사제지간의 관계로 시작된다는 점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애정관계를 예감하게 한다. 사제지간의 애정관계 형성이라는 모티프는 『無情』에서 처음 등장한 것이지만, 남녀의 애정에 있어 학문, 즉 정신적 요소가 매개로 등장하는 경우는 1906년 발표된 이인직의 『血의淚』<sup>16)</sup>에서 이미 제시된 바 있다.

『血의淚』의 두 주인공 옥련과 구완서는 오사까의 정류장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남의 계기가 되는 것이 ‘공부’를 했음직한 분위기를 띠는 옥련의 모습이다. 그리고 구완서가 오갈 데 없어진 옥련을 함께 미국 유학에 데리고 떠나면서부터 ‘공부’는 이들 두 인물간의 애정의 진행에 있어서는 물론, 결혼의 절대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부하여 학문 지식이 넉넉한 후에 아내도 학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장가들겠다>는 구완서의 언급은 여성의 교육을 혼인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다. 우연의 빈번한 중첩 속에서 갑작스럽게 전개되는 옥련의 미국 유학 역시 구완서의 이러한 언급, 넓게는 새로운 가족제도와 여성의

동일하게 논한 바 있다. 즉, “갓히 會堂에 出席하여 갓히 讚頌을 부르게되매 上帝의 앞에 平等한 子女라는 思想을 엇게 됨은 耶蘇敎의 德이외다”라는 부분이 그것이다. 孤舟, 『耶蘇敎의 朝鮮에 준 恩惠』, 『靑春』(1917. 7), p.16.

16) 李仁植, 『血의淚』, 『韓國新小説全集』(乙酉文化社, 1963).

지위향상에 대한 시대적 요구와 깊은 연관을 지니고 있다. 학문을 매개로 자율적인 애정관계를 형성, 결혼의 조건으로서도 학문을 중심에 두고 있는 『血의淚』의 구완서와 옥련의 모습은 당시 풍속으로는 낯설었던 파격적이고도 새로운 애정관 및 혼인관을 표현하고 있다. 그 새로운 애정관이란 이인직이 작품을 통하여 직접 명시하고 있지는 않지만, 남녀 평등을 지향하며 일본으로부터 이입되기 시작한, 정신적 가치 절대적 중시의 ‘연애’에 다름 아니다.

『血의淚』에서 이인직이 취하는 이와 같은 태도는 『無情』의 이광수에 게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이광수가 『無情』의 두 주인공 이형식과 선형을, 동경유학생 출신의 교사와 미국 유학을 준비하는 여학생<sup>17)</sup>이라는 당시로서도 드문 사제지간의 관계로서 설정, 애정의 관계를 형성케 할 때 여기에는 정신성을 중요시한 ‘연애’의 이상이 내재해 있었다. ‘연애’의 정신성 중요시의 태도란 것이 <神聖한戀愛라고 稱하는 것은 自覺한戀愛<sup>18)</sup>>라는 『靑年』의 논설에서 나타나듯, 독립된 개체로서의 개인적 자각을 기저에 둔 것이라고 할 때 이형식, 특히 선형은 이 점을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듯 보여지기도 한다. 선형의 경우 이형식과의 만남부터 그녀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이형식을 사윗감으로서 마음에 둔 아버지 김장로의 의도에 따른 것이었으며 결혼의 결정 역시 <아버지가 하라고 하시면 그만이지>라는 언급에서도 나타나듯 아버지의 결정을 따른 전통적 강압결혼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처럼 선형은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는 신여성이라는 외관과는 달리 전통적 사고에 깊이 젖어 있는 인물로서 이광수가 지향하고 있는 자율적인 애정, 즉 자유연애의 히로인으로 설정되기에는 많은 문제를 노출시키기도 한다. 그러나 선형의 시대가 신문명이 이입되기 시작한 근대

17) 연애의 성립과 여학생의 등장에 관해서는 즐고, 『연애의 동경과 좌절』(한국현대소설학회, 『다메체 환경과 소설의 위상』, 한국현대소설학회 제13회 연구발표대회, 1999. 6)을 참조하기 바람.

18) 尹權, 『性慾과戀愛』, 『靑年』(1911. 12), p.44.

초기였다는 점, 평양 명기 부용을 어머니로 두었다는 선형의 신분에서도 나타나듯 여학생의 대부분이 첩 혹은 기생의 딸<sup>19)</sup>들이었을 정도로 보수성이 강력하게 힘을 떨치고 있던 시기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선형의 모습은 우연히 만난 구완서를 따라 무작정 미국 유학을 떠나던 『血의淚』의 옥련에 비해 오히려 시대적 리얼리티를 확보하고 있다. 이광수는 이처럼 선형을 시대적 범위 안에서 생성, 성장시켜간다. 사제지간이라는 선형과 이형식의 관계 역시 연애의 정신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정이었음과 더불어 실생활 속에서 남녀간의 자유연애가 아직은 많은 제약을 받았던 당대의 완고성을 고려한 배려였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명에 따라 혼약은 약속되지만 두 사람의 성례는 공부 가 끝나는 5년 후로 잡히는 것 역시,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시간적 유예를 확보함에 의해 시대적 현실성의 범위 내에서 연애의 제 이상을 실현해 가기 위해서이다.

성례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시간적 유예는 남존여비와 강압결혼 등으로 점철되어가던 『無情』을 근대적 세계로 이끌어 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선형과 이형식의 혼인결정은 ‘개인적 자각’에 기반한 자율적 애정 선택이라는 자유연애의 기본적 취지와는 별반 관계없이 내려지고 있다. 선형의 측에서 보면 형식에 대해 호감은커녕, 오히려 멸시의 마음을 안고 있으면서도 오로지 아버지의 명령에 대한 복종이, 형식의 측면에서 보면 선형의 외모에 대한 호감과 신분상승에의 강렬한 욕망이 결혼의 주된 이유가 되고 있다. 그러므로 혼약이 결정된 순간부터 선형은 이형식의 보잘 것 없는 외모와 초라한 이력을 반복해서 생각하고, 이형식은 선형의 애정을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번민한다. 선형을 지각이 없는 어

---

19) 1886년 설립된 한국 최초의 여학교 이화학당의 첫 학생이 정부 관리의 소실이 있다는 점, 그리고 김동인의 『金妍實傳』에서 평양 최초의 여학교인 진명학교에 대한 다음의 언급은 이에 대한 실증적 근거가 된다. “내외를 그다지 엄히 지킬 필요를 느끼지 않는 기생의 딸 혹은 소실의 딸들이 이 학교에 모여들었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이 여염집의 딸들은 이 학교를 천시하고, 드디어 그 칭호까지도 진명학교라 부르지 않고 기생학교라 부르게까지 된 것이다.” 金東仁, 『金妍實傳』, 『金東仁全集』 2(大衆書館, 1983), p.260.

린애로서, 자신을 전인격적인 인간으로서 설정하는 이형식의 과잉된 자기의식과, 이형식의 외모에 끊임없이 집착하는 선형의 히스테리칼한 반응은 이들의 혼약이 사랑에 기반해 있지 않음을 명확히 명시하고 있다. 이처럼 『無情』이 여학생을 히로인으로 설정, 자유연애를 지향하면서도 시대적 한계로 인해서 정신적 교섭의 부재, 남존여비의 극단화 등 전근대적 혼인제도의 폐해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면, 이와 같은 내적 파탄을 막기 위해 제안된 것이 성례에 이르기까지의 5년간의 시간적 유예다.

성례가 육체적 결합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에 유의할 때 성례의 유보, 즉 5년간의 시간적 유예는 이형식과 선형을 육체적 결합의 유보 속에서 정신적 교류로 자연스럽게 연결시켜간다. 선형과 형식의 박사학위 취득 시한(時限)인 5년이라는 기간은 <공부하여 학문 지식이 넉넉한 후에 아내도 학문 있는 사람을 구하여 장가들겠다>는 『血의淚』의 구완서의 언급, 즉 정신성과 평등에 기반한 남녀관계를 새삼 떠오르게 한다. 자기를 사랑하는지를 묻는 이형식의 물음에 선형이 내어 비친 다음의 심적 혼란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만하다.

선형도 하도 뜻밖의 질문이라 눈이 등그레진다.

더욱 무서운 생각이 난다. 실로 아직 선형은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는가 않는가를 생각하여 본 적이 없다. 자기에게는 그런 것을 생각할 권리가 있는 줄도 몰랐다. 자기는 이미 형식의 아내다. 그러면 형식을 섬기는 것이 자기의 의무일 것이다. 아무쪼록 형식이가 정답게 되도록 힘은 썼으나, 정답게 아니 되면 어찌하겠다 하는 생각은 꿈에도 한 일이 없었다. 형식의 이 질문은 선형에게는 청천벽력이었다.<sup>20)</sup>

선형은 이형식으로부터 사랑의 확인을 강요당하자 기생 취급을 받은 듯한 불쾌감을 느끼다가 급기야는 <제 지아비를 정성으로 사랑하게 하여주옵시오>라고 신에게 기도를 드리는 상황에까지 달하게 된다. 선형이

20) 李光洙, 『無情』(三中堂, 1962), p.250.

연출하는 이 희극적인 상황은 섬김과 사랑, 양자에 대한 인식의 무차별화에서 비롯되고 있다. 선형의 경우 기독교도로서 성경을 통하여 지아비에 대한 사랑의 개념을 습득, 그 교리를 엄숙히 머리에 넣고는 있으나 정신성과 평등에 기반한 그 낮은 사랑의 개념이 지아비에 대한 섬김의 의무로 형성된 세계 속에서만 살았던 그녀의 의식 속에서는 전혀 납득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말하자면 선형의 의식 속에서는 ‘연애’가 의미한 바 정신성에 기반한 사랑의 개념이 전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이다. 선형의 이 상황은 서양식으로 집을 꾸미고 기생출신의 첩을 본처로 앉히며 자식의 결혼에 대해 아내와 의논하기는 하지만, 평등개념이 무엇인지 이해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김장로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형식이 갑자기 건넌 사랑이라는 용어로 인해서 불쾌와 당황을 느끼던 선형은 급기야는 “머리가 소란하여 더 생각할 수”가 없는 혼란된 상황에 이르러게 된다. 섬김과 사랑의 무차별화에서 차별화로의 전이, 즉 자각이 그녀의 의식 속에서 발생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말도 많이 듣고, 서로 생각도 통하여짐을 따라” 형식에 대한 애정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선형의 언급에서도 나타나듯 조금씩 일기 시작하는 선형과 형식간의 정신적 교류는 그런 의미에서 주의를 요한다.

선형의 갈등과 혼란 그리고 자각의 과정을 통해 규명되는 ‘연애’의 제 의식은 이형식이 겪는 동일한 갈등과 혼란, 자각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훨씬 명료하게 정리된다. 선형을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몰아넣었던 사랑의 진위에 대한 이형식의 질문은, 부모의 결정에 따라 조혼 후 애정 없는 결혼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친구 병국의 번민 어린 편지에서 비롯된다. “영육(靈肉)을 합한 전인격적 사랑”이라는 이상과 육체적 교섭밖에 없는 결혼생활이라는 현실, 이 양자 사이에서 갈등·번민하는 병국의 편지를 접한 후 이형식은 선형과의 혼약이 진실로 사랑에 기초해 있는지 아닌지 회의하기 시작한다. 사제지간의 혼약이라는, 정신성을 강하게 품고 있는 관계의 외관과는 달리 이형식은 선형과 자신의 혼약이 실제로는 부모의 명령에 대한 복종과 色에의 일시적 도취와 같은 전근대적 요

소들에 기반해 있음을 깨닫게 된다. 선형과 자신의 애정관계가 왜 ‘자각’된 ‘연애’로 연결되지 못했는가를 밝히는 이형식의 다음의 언급은 ‘연애’의 제 의식에 대한 설명이 됨은 물론 한 개인의 애정史가 시대성을 확보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의 사랑은 아직 진화(進化)를 지나지 못한 원시적 사랑이었다. 마치 어린 애끼리 서로 정이 들어서 떨어지기 싫어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요, 또는 아직 문명하지 못한 민족들이 다만 고운 얼굴만 보고 곧 사랑이 생기는 것과 같은 사랑이었다.

다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 하면 문명하지 못한 민족의 사랑은 곧 육욕(肉慾)을 의미하되, 형식의 사랑에는 정신적 분자(精神의分子)가 많았을 뿐이다. 그러니 형식은 다만 정신적 사랑이라는 이름만 알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었다. 진정한 사랑은 피차에 정신적으로 서로 이해하는데서 나오는 줄을 몰랐다.

형식의 사랑은 실로 낡은 시대, 자각(自覺)없는 시대에서 새시대, 자각 있는 시대로 옮겨가려는 과도기(過渡期)의 청년(조선청년)이 흔히 가지는 사랑이다. 자기의 사랑이 이러한 사랑인 줄을 깨닫는다 하면 형식의 전도에는 대변동이 일어나지 아니치 못할 것이다.<sup>21)</sup>

이형식은, 전통적 규범에 의해서만 남녀관계를 인지했던 선형과 정신적 사랑 운운하기는 했으나 결국 ‘색’에 취한 사랑에밖에 이르지 못했던 자신간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문명적 사랑’, 즉 연애의 근대적 의식을 전혀 이해치 못했음에는 동일하다는 자각에 이르게 된다. “균질 공간 또는 시민사회에서만 가능”<sup>22)</sup>한 ‘연애’의 제 의식이 봉건적이고 위계적인 질서의 공간에 살고 있었던 선형에게 형성되어 있지 않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라는 시대적 한계성을 이형식이 인지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그 결과 그는 선형의 스승의 입장에만 서있던 기존의 태도를 수정, 선형과 자신을 동일한 어린애로 위치시키고 선형의 외모만 알 뿐 선형의 내면에

21) 위의 책, p.273.

22) 柄谷行人, 박유하 역, 『일본근대문학의 기원』(민음사, 1997), p.85.

대해서는 무엇 하나 아는 것이 없다는 점을 반성해 간다. “사물에 앞서 존재하는 개념 또는 형상적 언어”가 무화되고 “내면이 내면으로 존재하기 시작하<sup>23)</sup>는 ‘지각양태’의 ‘구체적인 역전’, 말하자면 당대 연애론자들이 중시했던 ‘자각’이 이형식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다. 이 역전에 의해서 이형식은 비로소 <이름만 알고 그 내용을 알지 못하였>던 정신적 사랑의 의미, 혹은 평등한 인간관에 기반한 ‘연애’의 진정한 ‘내용’에 조금씩 접근해 가기 시작한다.

이처럼 이형식과 선형 두 사람이 ‘연애’의 제 의미에 접근하면 접근할수록 조혼, 강압결혼, 남존여비 등 일상적이고 보편적인 것으로 용인되어 온 당대의 익숙한 삶의 형태가 하나씩 낫설은 ‘풍경’으로 창출되기 시작한다. 일부일처주의에 대한 이형식의 지향은 조혼 후 기생놀음으로 일관하는 신우선이란 인물에 의해 표상되는, 당시로서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었던 일부다처의 혼인관습의 부당함을, 이형식과의 대화를 통해 평등한 인간관계를 형성해 가는 선형의 모습은 신우선의 아내로 표상되는 소외된 당시 여성들의 비극적 삶을 관심의 지평 속으로 떠오르게 해 준다. 이 지점으로부터 ‘연애’는 시대개혁적 의미를 띠게 된다. 선형과 이형식이 ‘연애’의 실현을 통해 ‘연애’의 시대개혁적 의미를 확인시켜주었다면 사랑의 좌절을 통해 ‘연애’의 시대개혁적 의미를 확인시켜주는 한 축이 있는데 바로 영채다.

#### 4. 처녀성 상실의 이중적 의미

『無情』에서 이형식은 영어교습을 위해 선형과 첫 대면한 바로 그 날, 은인의 딸인 영채와 십여 년만의 재회를 한다. 서양식으로 장식된 집에서 정갈한 모습을 한 여학생 선형과 사제지간의 첫 인사를 나누고 돌아

23) 위의 책, p.82.

은 이형식에게 영채는 갑작스레 출현, 과거의 눈물겨운 고생담을 울음과 함께 쏟아 놓기 시작한다. 이형식과의 애정 형성에 있어서 학문을 매개로 삼는 선형과는 달리, 영채는 이처럼 舊緣 혹은 報恩과 같은 구시대적 정서를 들고 들어오는데 이는 기생이라는 그녀의 사회적 신분과 연결되어 영채의 성향을 결정짓는 주된 요소로 작용한다. 특히 기생이라는 영채의 신분은 여학생 선형에게 ‘연애’의 히로인 자리를 내어주는 원인이 될 뿐 아니라 『無情』이 내어 건 자유연애의 제 의식을 규명함에 있어 중요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먼저 『無情』과 동시대 작품에 나타난 기생의 이미지 고찰을 통하여 기생에 대한 당대의 시선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912년 발표된 이상협이 『눈물』에서 기생 평양집은 정부(情夫)와 공모, 내연의 관계에 있던 주인공 조필환의 가정을 파멸로 이끌지만 그녀 역시 다른 기생에게 흥미를 느낀 정부에게 버림을 받는 지경에 이른다. 여기서 평양집이 행하는 악행과 그녀가 겪는 불행, 이 모든 요소의 근거는 그녀가 상대 남성들과 맺는 애정관계가 지극히 가변적이고 육체적이라는 점에서 찾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평양집의 이미지는 작자미상의 1913년 『鍊光亭』을 거쳐 1918년 『을밀대』<sup>24)</sup>에 등장하는 기생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1910년을 넘어서면서 기생은 풍류의 창출자라는 이전의 이미지를 상실, 오갈 데 없이 불우한 존재로 전락한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는데 여기에는 정신적 가치를 존중하고 일부일처제의 준수를 통해 평등한 남녀관계를 지향했던 ‘연애’의 제 의식이 결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sup>25)</sup> 인간이 다른 동물보다 열등한 점으로서 거짓말과 더불어 창

24) 『鍊光亭』(작자미상, 新舊益慧, 1918) 진주집의 경우, 젊어 한 때 좋은 인물을 가지고 있으나 이제는 먹고 살 길이 없어 투쟁이를 하거나, 유부녀 유인, 젊은 청년 사기 등을 일삼고 있는 인물이며 『을밀대』(작자미상, 大日補給, 1918)의 평양집의 경우 동일하게 투쟁이를 하다가 돈을 위해 무고한 사람의 살인 모의까지 계획, 결국에는 자신이 살해당하게 된다.

25) 1884년, 일본 연애론의 선구적 논자였던 巖本善治의 언급-에·창기가 소설의 제재로서 거론되어지게 되면 그 실제의 생활을 묘사함에 의해서 하천한 생활실태를 명백하게 하고, 사람들, 특히 소녀들에 의해 에·창기에의 혐오감을 축구



기체도를 제시했던 이광수의 태도<sup>26)</sup>에 비추어 볼 때 『無情』의 영채 역시 바로 ‘연애’에 내재한 이와 같은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생성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無情』에서 기생이라는 영채의 신분은 영채 삶의 모든 비극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아버지를 살리기 위해 마지못해 선택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당대 선각자였던 아버지는 기생이라는 딸의 신분에서 절망, 자살을 한다. 당대의 권력이 김현수가 영채를 아무런 죄의식 없이 강간하는 것도, 보은에 잡혀 주저하면서도 이형식이 결국에는 영채를 버리는 것도 모두 기생이라는 영채의 신분에서 기인하고 있다. 특히 김현수에 의한 정조의 유린이 영채와 이형식을 제외한 주변 누구에게서도 별반 분노 없이 받아들여진다는 점은 기생이라는 영채의 신분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영채의 처녀성 상실은 이처럼 영채 개인에게 가해진 위해였다기보다는 기생에 가해진 당대의 비난을 상징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의 깊다.

기생에 대한 당대 사회의 비판적 시각은 영채를 비롯, 영채의 어머인 퇴기 노파, 영채의 친우 월화, 계향 등 작품에 등장하는 모든 기생들의 전략과 죽음을 통해서 나타난다. 이형식에게 오라비의 감정조차 갖게 했던 순수한 모습의 어린 기생 계향은 부호의 첩이 된 후 매독에 걸려 결국 버림을 받으며, 명기로 이름 날렸던 노파는 영채의 몸을 미끼로 밥을 벌어먹을 정도로 전략해있는 형편이다. 첩, 매음, 포주 등이 젊은 한 시기를 넘긴 기생의 정해진 미래라면, 그 행로를 벗어나기 위해 안간힘을 썼던 월화의 자살은 기생의 신분에서 그 행로를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sup>27)</sup> 기생에 대해 낭만적 시선을 견지하

---

하도록 하지 않으면 안된다—은 1910년대 소설에 나타난 기생의 부정적 이미지를 이해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嚴本善治, 「理想的佳人」, 『明治文學全集』 32 (築波書房, 1975), p.104.

26) 李光洙, 「그의 自敍傳」, 『李光洙全集』 9, 앞의 책, p.440.

27) 기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을 비판 결국에는 자살에 이르는 월화의 모습은 1921

고 있던 전시대와는 달리 『無情』은 기생을 묘사함에 있어 극도로 사실화된 시선을 견지하는데 이와 같은 시선의 차이는 시대 의식의 편차에서 비롯되고 있다. 정신적 가치의 중요시, 일부일처제 준수를 지향했던 ‘연애’는 전시대와 구별되는 새시대의 의식을 설명하기에 가장 적합한 예라고 할 수 있다.

『無情』의 사실적 묘사가 시대에 대한 정확한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그 점에서 기생 영채의 ‘처녀성’은 다소간의 모순을 만들어내고 있기도 하다. 영채의 처녀성은 기생이라는 그녀의 신분에 비추어 볼 때 비현실적 설정일 뿐 아니라 자유연애에 대한 『無情』의 지향과도 배치되어 있기 때문이다. 김현수에게 겁탈당한 후 울부짖는 영채를 보며 동정은커녕 <저마다 당하는 일>이라며 오히려 핀잔의 마음을 갖는 노파의 태도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많은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똑같은 남자와 오래 있기보다는 가끔 새로운 남자를 대하는 것이 더 즐거웠으며, <열아홉살 적에 적어도 백명은 남자를 대>했던 노파의 모습이, 스무살 가까이 되어서 처녀성을 상실하고 울부짖는 영채에 비해 오히려 프로다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 그 노파의 입장에서 볼 때 기생의 속성과 상반되는 영채의 처녀성이란 것은 상실됨이 당연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영채의 처녀성이란 것이 영채에게 있어서 기생보다는 오히려 박진사의 딸 영채로서 자신을 위치시켜주는 징표였음에 반해, 노파에게 있어서는 기생에 대한 멸시를 의미하는 부담스러운 징표였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그래서 노파는 겁탈당한 영채를 보며 이제야 서방을 맞이했다고 안도의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영채의 처녀성이 노파의 입장에서 부담스럽고 무용한 것으로 느껴졌듯, 그것은 ‘연애’의 측면에서도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성례에 이르기까지 5년간의 유예기간을 설정, 육체적 교섭을 인위적으로

---

년 발표된 김동인의 「눈을 겨우 뜯 때」의 기생 금폐의 삶에서 동일하게 형상화되고 있다.

로 제어하면서까지 이형식과 선형으로 하여금 정신적 교류를 확보해가게 하던 『無情』의 태도가 남녀평등의 근대적 의식과 깊이 연결되어 있었다면, 그와 같은 정신성의 보증으로서의 처녀의 순결성<sup>28)</sup>이라는 것은 적어도 <교육이 있는> 여자의 몫이었던 것이다. 강연과 같은 엄숙한 공식적 상에서조차 공공연한 육체적 희롱을 당한다거나, “춘정을 파는 아름다운 동물로”<sup>29)</sup>나 취급당했던 기생이라는 존재가 근대로부터 비판적 시선을 받았던 것은, 그리고 ‘연애’의 적대적 인물로 규정되었던 것은 바로 이 때 문이었다. 여학생이 당대의 히로인으로 등장, 기생이 몰락의 길을 걷게 되는 것에는 ‘연애’가 전파시킨 이와 같은 ‘정신성의 보증으로서의 처녀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상에 근거할 때 영체의 처녀성 상실은 이미 작품이 창작되는 그 순간부터 필연적으로 결정되어 있었다고 할 수 있다. 기생의 신분으로서 남성들과 정신적 교류를 통해 평등한 관계를 형성하고자 했던 월화의 열망이 자살이라는 형태로 단죄되고 있다면, 기생의 신분으로서 정조를 유지하고자 하는 영체의 의지 역시 그에 값하는 피를 흘릴 수밖에 없는데 그 결과로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처녀성의 상실이다.

영체의 처녀성 상실이 기생에 대한 근대의 부정적 시선에서 기인한 것이라면, 아이러니칼하게도 처녀성을 상실함으로써 영체는 오히려 근대적 세계로 진입하게 된다. 배명학과 김현수에게 처녀성을 겁탈당한 뒤 죽음을 결심, 평양행 기차를 탄 영체가 우연히 만난 동경 유학생 병욱으로부터 이형식을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느끼는 다음의 혼란은 그런 의미에서 주목할만하다.

28) 일본 연애론의 대표적 논자 北村透谷은 「處女の 純潔を 論する」(『女學雜誌』, 1894. 10, p.102)에서 처녀의 순결을 ‘연애’의 필수적 요건으로서 제시, “餓鬼畜生の 욕정과 싸우는 영묘한 인류로서의 순결”로서 정의하고 있다. 이처럼 ‘연애’에서 처녀의 순결이라는 것은 남녀관계의 정신성에 대한 강렬한 지향으로부터 비롯되고 있다.

29) 金東仁, 「눈을 겨우 뜰 때」, 『金東仁全集』 7(大衆書館, 1983), p.214.

사랑하느냐 하는 말에 영채는 가슴이 뜨끔하였다. 과연 자기가 형식을 사랑하였는가……. 알 수가 없다.

자기는 다만, 형식이라는 사람은 자기가 찾아야 할 사람, 섬겨야 할 사람으로 알았을 뿐이요, 칠팔년래로 일찍 형식을 사랑하는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다만 어서 형식을 찾고 싶다, 어서 만나면 자기의 소원을 이루겠다, 만나면 기쁘겠다 하였을 뿐이다.

그러므로 영채는 멀거니 여학생을 보다가,

“그런 생각은 해 본 적도 없어요. 어려서 서로 떠났으니까 얼굴도 잘 기억하지 못하였는데…….”

“그러면 부친께서, 너는 아무의 아내가 되어라 하신 말씀이 있으니까 지금껏 찾으셨습니까그러…….별로 사모하는 생각도 없었는데…….”

“네, 그리고 어렸을 때에 정들었던 것이 아직도 기억이 되어요. 그때 일을 생각하면 어째 그리운 생각이 나요.”<sup>30)</sup>

여기서 이형식과의 관계에서 선형이 느꼈던 혼란이 영채에게서도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선형의 혼란이 그녀의 의식 속에 근대적 사랑의 개념이 성립되어 있지 않았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면 영채의 혼란 역시 동일한 원인에서 비롯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생이 된 상황에서도 영채가 목숨을 걸고 지켜온 정조라는 것은 기실 이형식에 대한 사랑보다는 ‘不更二夫’의 전통적 정절 개념에 결정적으로 근원하고 있다. 물론 십 년만에 이형식을 만난 순간, 그 모습에 오히려 실망했다는 영채의 고백처럼 낭만적 첫사랑에 대한 소녀적 환상의 측면이 영채의 감정 속에 없는 것도 아니지만, 환상이 깨어지고 난 다음에도 이형식에 대한 일편단심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특히 정조를 유린당한 후 자살을 결심한다는 것은 이형식에 대한 영채의 감정이 不更二夫, 수절 등 전근대적 애정윤리에 의거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 점에서 영채라는 인물은 강압결혼과 不更二夫 등 청산되어야 할 구습으로서 제시되었던

30) 李光洙, 『無情』, 앞의 책, p.228.

전근대적 혼인의 형태를 온전히 재현하고 있는 인물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無情』 내에서 영채의 정조가 이와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면 영채는 정조의 상실에 의해 그녀의 의식을 형성하고 있던 ‘不更二夫’의 전근대적 윤리의 전적인 붕괴라는 중요한 의식의 역전을 경험, ‘내면’을 형성케 된다.

이 점은 정조를 상실한 이후 영채가 겪는 내적 외적 변화를 통해 나타난다. 정조의 상실을 계기로 영채는 기생이라는 이전의 신분에서 탈피, 동경유학이라는 근대적 교육 습득의 기회를 얻는다. 기생에서 여학생으로의 전환이라는 외형적 삶의 급격한 변화는 영채의 내면적 의식의 변화에서도 동일하게 발견된다. 자신은 <독립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도덕률(道德律)의 한 모형에 지나지> 않았으며, <자기가 지금까지 유일한 세상으로 알아 오던 세상이 기실 보잘 것 없는 허깨비>에 불과했다는, 자기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자각이 영채의 의식 속에서 싹트기 시작하는 것이다. 여학생이라는 영채의 외적 변화는 바로 영채에게서 발생한 이 의식의 자각으로부터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로부터 영채는 전근대적 세계를 탈피, 근대적 세계로 진입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 5. 결론

『無情』은 <자각 없는 시대에서 새 시대, 자각 있는 시대로 옮겨가려는 파도기>조선의 풍경을 ‘연애’라는 렌즈를 통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 작품은 이인직의 『血의淚』에서 다루어졌던 학문을 매개로 한 애정형태를 계승, 정신성 중시라는 당시 조선에서는 보기 드물었던 남녀간의 새로운 애정형태를 제시하고 있다. 여학생 선형이 등장, 이형식과 사제지간의 애정관계를 형성해 가는 모습은 『無情』이 모색했던 정신성에 기반한 새로운 남녀관계의 이상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無情』이 이처럼 정신성에 기반한 남녀관계를 지향한 것에는 여학생이라는 선형의 신분에서도 나타

나뒸 여성의 교육을 통한 평등한 남녀관계 형성이라는 근대적 의식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여학생 선형과 기생 영채의 사이에서 갈등·방황하던 이형식이 선형을 택한 것은 ‘연애’라고 이름하여지는 바로 이 새로운 애정의식에 전적으로 기인하고 있음에 다름 아니다.

『無情』이 새로운 애정형태인 ‘연애’를 표방하고 나섬에는 근대적 세계에 대한 이광수의 강렬한 지향이 중요한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연애’가 강압결혼, 조혼과 같은 전근대적 애정윤리의 전면적 붕괴를 필수적 조건으로서 요구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연애’의 제 의식에 대한 이광수의 모색이 어디로 연결되는지는 충분히 짐작 가능하다. 『無情』에서 이형식이 여학생 선형을 선택하는 결정적 계기가 바로 영채를 찾으러 내려갔던 평양행, 엄밀히 말하자면 칠성문으로 상징되는 전근대적 세계와의 접촉에서 비롯되고 있음은 이형식, 넓게는 이와 같은 이광수의 의식을 설명함에 중요한 근거가 된다. 이처럼 『無情』이 전근대적 세계와 근대적 세계의 경계에서 근대적 세계를 향하여 서서히 몸을 움직여가던 1910년대 조선의 풍경을 ‘연애’라는 렌즈를 통하여 담을 때 그 곳에는 근대를 향한 이광수의 지향이 깊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

## Abstract

### A Glance to the Modern Times

- The Central Figure of Love Formation in the Lee, Kwang - Su's Novel *Mujung* -

Jung, Hye - Young

Lee, Kwang--Su's novel *Mujung* had been attracted by young people because of it's theme which is the love. Such theme is first mentioned by novel *Mujung*. The love that flowed in by students studying Tokyo

spreaded all over the country with interesting of raising women's status in society. The reason that all over the country observe to the love was the distrust of the marriage institution like an early marriage and oppress marriage. The novel *Mujung* seizes the features of revolutionize time of Chosun.

We can consider the social meaning of the love in novel *Mujung* by two type of love. The first type of love is relationship between 'Lee, Hyung-Sik' and 'Kim, Sun-Hyung'. The second type of love is relationship between 'Lee, Hyung-Sik' and 'Park, Young-Chae'. The relation of love between 'Lee, Hyung-Sik' and 'Kim, Sun-Hyung' is made up with rare love relationship between teacher and student. But the relation of love between 'Lee, Hyung-Sik' and 'Park, Young-Chae' is made up with old style relation of love like an old fate and favor. Finally in this novel, the modern meaning of love is established by the heterogeneous relationship of love.

